

## 三國遺事 武王條 檢討

현 승 환\*

### 目 次

- I. 문제의 제기
- II. 서동의 정체
- III. 내 북에 산다계 설화의 수용
- IV. 미륵사연기설화의 수용
- V. 결 론

### I. 문제의 제기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린 무왕조의 기록으로 보아 백제에는 서동으로 일컬어지는 실존인물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전승민들은 그를 모델로 서동요의 배경설화를 형성시켜 전승시켰고, 일연은 여기에 미륵사 연기설화를 덧붙여 삼국유사에 기록해 놓았다.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무왕설화는 삼국유사 기록을 말하지만 이의 형성과정의 해명을 위해서는 일연의 기록 내용의 세밀한 분석과 아울러 민간에서 전승되는 무왕에 관한 주변 설화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추론이 불가피하다.

역사는 실제적 진실이고, 전설은 역사와 실제적 진실을 토대로 형성된 것으로 전승민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느냐에 따라 그 변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전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실을 보증하는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서동에 관한 전설 역시 증거물을 중요시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 인물이라는 증거이다. 이는 암석, 나무 등과 같은 증거물이 사라졌을 때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전설이 민담화하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 때문에 역사상 인물인 무왕이라는 증거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삼국유사에서 일연이 남긴 기록 중 무왕에 대한 설명에서 ‘고본에 무강이라 했다. 그러나 아니다. 백제에 무강이 없기 때문이다(古本作武康 非也 百濟無武康). 또한 삼국사에 무왕을 법왕의 아들이라 하고 흠어머니의 아들이라 했으나 알 수

---

\* 국어교육과 교수

없다(三國史云 法王之子 而此傳之獨女之子 未詳)’고 하여 무왕의 정체에 대한 의문점을 야기시켰다.

특히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독녀지자의 기록을 曠 法王之子的 기록이 보이고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는 이 두 기록을 모두 남기면서 ‘未詳’이라 하였다.

김부식은 사관의 입장에서 法王之子는 수궁이 가지만 독녀지자는 부자상속이 위주였을 백제의 왕위세습제도를 고려할 때 홀어머니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는 점을 법통상 믿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이를 삭제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보아 서동에 대한 기록이 실존 인물에 관한 일인가 설화적 인물에 관한 일인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해 준다.

반면에 일연은 체제를 갖춘 역사서에서 빠뜨려 버려지기 쉬운 자기 나라의 옛이야기들, 신이한 사실 속에 묻혀져 온 그 설화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애써 전달하고 싶었기에 그는 이 신이한 것들을 원형 그대로 제시하여 그 속에 내포되고 상징화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결과 구전되는 내용의 기록으로 보이는 삼국사의 기록에 친절하게 주를 달아 독자를 이해시키려 하였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무왕은 법통상 법왕의 아들이요 모계로는 홀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며, 어머니편은 평민측이고 아버지편은 왕자며, 서동은 이 두 가지 부모 신분을 다 경험한 셈이 된다. 그러나 독녀지자의 합리성이 결여되는 상황에서 김부식마저 수용하지 않은 무왕의 기이한 탄생과정과 혼인 문제 등을 일연은 어떤 이유로 수용하였고, 설화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였을까.

이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여 기록한 일연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후, 서동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규정짓고, 무왕이라 칭해지는 주인공 서동이 왜 설화화되며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삼국유사의 작자가 송 일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동설화 속의 미륵사연기설화에서 암시되는 미륵 사상을 추찰해 보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서동요의 주인공 서동은 무왕이라는 사실을 사서를 통해 확인하고 지금까지 설화상의 이야기로 여겨지던 서동과 선화공주와의 러브스토리가 암시하는 의미를 밝히려 한다. 그것은 서동이 왜 무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서동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어 대표적 논의로 이병도 박사는 서동설화의 내용과 무왕대의 역사적 사실과를 비교하여, 이 설화가 무왕과는 무관한 것임을 역설한 다음 서동의 동성왕설을 주장하고,<sup>1)</sup> 사재동은<sup>2)</sup> ‘무강왕’은 즉 ‘호령

왕'으로서 서동은 바로 '무녕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sup>3)</sup>고 했다. 그러나 널리 인정되는 것이 무왕설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논지로 보아 타당하다. 하지만 이들은 삼국유사 기이편의 성격 곧 일연이 의도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기록했다는 숨은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론들이라 할 수 있다. 서동전설이 내포한 근원설화를 분석하고 일연이 밝힌 무왕이라는 사실에 충실하며 그에 얽힌 설화의 성격을 밝혀 일연의 의도와 서동이 무왕일 수 있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이 글의 의도는 여기에 있다.

## Ⅱ. 서동의 정체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서동은 무왕이라 밝혔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무왕에 관한 기록을 보면

〈무왕의 이름은 장으로 법왕의 아들인데 위풍이 뛰어나고 지기가 호걸하였다. 법왕이 즉위하였다가 그 다음 해에 돌아가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sup>4)</sup>

이어서 무왕과 법왕의 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법왕의 이름은 선-혹 효순이라고도 함-으로 혜왕의 장자인데 혜왕이 돌아가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隋書에 법왕 선을 창왕의 아들이라 하였다.)〉<sup>5)</sup>

〈혜왕의 이름은 계로 명왕(성왕)의 제2자인데 창왕(위덕왕)이 돌아가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sup>6)</sup>

〈위덕왕의 이름은 창으로 성왕의 원자인데 성왕이 재위 32년에 돌아가시자 왕위를 계승하여 즉위하였다.〉<sup>7)</sup>

1) 이병도, "서동설화에 대한 신고찰", 『역사학보』 제1집, 1953, pp.52~53.

2) 사재동, "서동설화연구", 『장암지현영선생화갑기념논총』, 1971, pp.895~952.

3) 이재호 역주, 『삼국유사』, 세계고전전집, 한국자유교양추진회, 1970, pp.252~253

4) 『삼국사기』 권 제27, 백제본기 제5, 무왕武王 諱璋 法王之子 風儀英偉 志氣豪傑 法王即位 翌年薨 子嗣位

5) 『삼국사기』, 法王 諱宣(或云孝順) 惠王之長子 惠王薨 子宜繼位(隋書 以宜爲昌王之子)

6) 위의 책, 惠王 諱季 明王 第二子 昌王薨 即位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의 이들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여 정리하고 재위연대를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왕 31 { 위덕왕 44(창왕이라고도 함. 성왕의 원자)  
 혜왕 1(성왕의 2자) - 법왕 1(혜왕의 장자) - 무왕 41(법왕지자)

곧 성왕 - 위덕왕 - 혜왕 - 법왕 - 무왕의 순서로 왕통을 이은 것이다.

위 내용에서 보면 서동으로 인식되는 무왕은 법왕을 아버지로 혜왕을 할아버지로 성왕을 증조부로 모시는 가계의 일원이다. 아버지인 법왕이 재위 1년 만에 단명했기에 큰 할아버지인 위덕왕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낸 셈이 된다.

그런데 <隋書<sup>8)</sup>에 법왕 선을 창왕의 아들이라 하였다.>라 하는 기록으로 눈을 돌리면 가계가 달라진다. 그럴 경우 법왕은 창왕(위덕왕)의 아들이 되어 다음과 같은 가계가 이루어진다.

성왕 31 { 위덕왕 44(창왕이라고도 함. 성왕의 원자)  
 - 법왕 1(위덕왕의 아들) - 무왕 41(法王之子)  
 혜왕 1(성왕의 2자)

곧 성왕 - 위덕왕 - 혜왕 - 법왕 - 무왕이라는 세습왕권이 이룩된다. 법왕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달리 위덕왕의 아들이다. 왕위를 계승할 때 위덕왕은 아들인 법왕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동생인 혜왕에게 승계한 셈이 되는 것이다.

법왕이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혜왕의 장자인가 아니면 隋書의 기록대로 창왕(위덕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간과해 버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삼국사에 <무왕이 법왕의 아들이라 하며 흠어머니의 아들이라> 했다는 기록을 참조했다는 것은 무왕의 정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무왕은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대로 위덕왕에게 후사가 없기에 아우인 혜왕이 승계하고 그의 아들인 법왕이 다시 왕통을 이어 무왕은 무리없이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 인물이 된다. 이럴 경우 서동전설 속의 주인공 서동은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강」왕으로 일컬어지는 존재가 무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왕인 동성왕이든 무녕왕이든 어느 한 인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설화적인 인

7) 위의 책, 威德王 諱昌 聖王之元子也 聖王在位三十二年 堯 繼位

8) 당나라(618~907)의 위징이 태종(즉위 626~649)의 칙명을 받들어 지은 수나라(581~617) 시대의 역사책.

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수서의 기록대로라면 논의는 아주 달라진다. 위덕왕에게 후사가 있었음에도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제간 양위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왕통이 장자인 법왕과 무왕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같은 혼란의 과정 속에서 설화는 만들어지고 전승되게 마련이다. 특히 주인공이 전승민들에게 특이한 존재로 인식되어 영웅시될 때 그러한 경향은 강해진다.<sup>9)</sup>

이같은 논의는 수서의 기록의 타당성에 따라 해명될 수 있다. 隋書는 당 태종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수나라의 정사로 서기 636년에 완성되었다. 수는 무왕 18년까지 중국을 통치하다 607년에 당에게 멸망한다. 수가 멸망한 뒤 30여년 후에 隋書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기에 무왕대와 隋書 완성 시기를 비교해 볼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이 1145년이므로 수서의 기록이 훨씬 앞서며 오히려 더 신빙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대주의에 따른 당시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隋書의 경우가 오히려 백제에 관한 객관적인 입장의 기록일 수가 있다.

隋書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백제는 왕위 세습제임에도 불구하고 위덕왕이 자신의 아들인 법왕에게 바로 왕위를 계승시키지 않고 동생인 혜왕에게 왕통을 잇게 하였다. 그러면 왜 위덕왕은 아들인 법왕에게 왕위를 계승시키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정사의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역사학자들도 삼국사기의 기록만 수용할 뿐 이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설화 속에는 진실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허구처럼 전승되는 것이므로 설화적 상상력을 펼쳐 삼국사기와 수서의 차이 속에 담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김부식이 사관으로서 수서를 참고하지 않을 리가 만무한데 이를 다르게 기록하게 된 것은 민중들이 전승하는 무왕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진실로서의 무왕에 대한 기록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전설은 진실된 역사가 아니라 허구화된 역사이다. 따라서 진실만을 기록해야 하는 사관의 입장에서 수서의 기록과 민중 사이에서의 구전 사실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설화는 은유이다. 따라서 앞서 제기한 대로 왜 왕위 계승에 혼란상이 보이는가 하는 기록의 행간에는 뭔가 사정이 있을 터이니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일이 설화 이해의 지름길일 것이다. 이를 추론해 보면 다음의 2가지로 추정된다.

- A. 법왕이 혜왕의 추종세력에 밀려 왕위계승을 못하거나
- B. 법왕이 위덕왕이 바라는 왕자가 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참조.

A에서 혜왕의 추종세력이 강했다는 것은 위덕왕이 44년 동안 재위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세력이 강하여 혜왕을 추대하였다 하더라도 재위 1년만에 그가 승하하였다고 하여 자신들의 반대파를 끌어들이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

隋書의 기록에 昌王之子라는 기록 때문에 법왕이 창왕 곧 위덕왕의 장자인지 차자인지는 의심이 간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법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왕에 있기에 장자인지 차자인지 위덕왕의 아들이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다.

그러면 B가 문제가 된다. 법왕이 위덕왕이 바라는 왕자가 못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왕손이라면 당연히 백성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주위에서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왕위를 양위해 주는 위덕왕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다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법왕이 아주 어리거나
2. 법왕이 비정상적인 생활인이었다.

위덕왕이 오랫동안 재위에 있었으니 1의 아주 어렸다는 사실도 있을 수 있지만 2의 비정상적인 생활인이었을 것이라는 데 관심이 간다. 위덕왕과 법왕의 나이차를 20년이라 추정하면 법왕과 무왕과도 20년 정도 차이를 둘 수 있다. 그런데 무왕은 할아버지인 위덕왕의 재위시에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여겨지므로 법왕이 아주 어렸다면 그의 자식인 무왕과의 관계가 모호해진다.

그렇다면 법왕은 그의 아버지인 위덕왕 재위 시의 비정상적인 생활인으로 판명된다. 그러기에 왕통을 이을 후계자이지만 위덕왕에게는 왕위를 이어받을 재목감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숙부인 혜왕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그 이후로 비정상적인 생활인인 법왕은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궁중 밖의 규수와 사이에서 서동인 무왕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무왕은 법왕의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왕자와 홀어머니로 나타나는 서민(獨女)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셈이 된다.

이처럼 자격요건이 모호한 무왕 곧 서동이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자 서동의 어린 시절과 양자간의 지나친 차이는 설화로 발전되어 전승되게 된다. 삼국유사의 서동 전설은 이러한 숨은 역사적 사실이 설화되고, 일연의 불교 포교의 의도와 결부되어 완성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삼국유사 무왕전설 기록을 통하여 실제 인물이 전설화되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일연이 어떤 이유로 미륵사연기설화로 남게 했는가라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내 북에 산다계 설화의 수용

무왕전설의 내용은 무왕의 탄생, 무왕이 선화공주와의 혼인, 미륵사 창건이라는 3개의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무왕의 탄생은 과부가 밤마다 찾아오는 남자와 동침을 하고 나서 잉태를 하고 출산을 했는데 그가 훗날 왕이 된다는 것으로 당시 독자적으로 전승되던 아래자 설화의 수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sup>10)</sup> 이는 실제 역사적 사실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이다. 무왕의 신이한 탄생은 기이편의 성격상 무왕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후백제의 건국주인 견훤의 탄생 전설로도 잘 알려져 있는 아래자 설화는 김화경<sup>11)</sup>에 의해 이미 밝혀진 바대로 북방계설화이다.<sup>12)</sup> 그는 등장인물들의 외양이나 연령, 성별, 직업 등과 같이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변체들이 민중의 경제 형태나 사회제도의 영향에 따라 변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아래자 설화의 전승권을 셋으로 나누는 뒤, 아래자가 발견되는 장소가 남쪽은 육지 중심, 북부는 수역 중심이라는 특징을 찾아내고, 이러한 변화는 북부지방의 수렵 내지는 어로 문화가 농경문화로 변화되면서 반영된 현상이라 하였다.

따라서 아래자 설화는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신화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아래자의 후손인 서동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이기 위한 때문이다. 즉 서동을 영웅의 일생을 나타내는 신화의 주인공처럼 수용하고자 한 전승민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소년기에 신라로 잠입하여 들어가 마를 나누어주면서 서동요를 부르게 하고 선화공주와 만나게 되는 혼인삽화에 관심이 두어진다. 이것은 무왕 설화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인데 ‘숫구이 장자’ 같은 민간설화를 수용한 것이다.

이것은 ‘내 북에 산다계 설화’<sup>13)</sup>로 통칭되며 초혼형과 재혼형으로 나뉘어 전승되는데 서동전설은 초혼형<sup>14)</sup>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리어왕 이야기와 유사하다. 초혼형은 중국에서는 조왕신의 유래

10) 서동이 아래자 설화를 수용하여 기이한 탄생을 하고 있음은 최상수에 의해 조사된 바 있다. (『南池』,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pp.120~123.)

11) 김화경, 『한국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7.

12) 손진태는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의 남부 지방으로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견훤식 전설』,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47 참조)

13) 현승환, “‘내 북에 산다’ 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3.

14) 리어왕 이야기로 잘 알려진 것인데 셋째 딸 덕으로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답으로, 제주도에서는 삼공신이라는 전생신의 유래담으로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서동전설의 중요한 삽화인 혼인삽화는 신화로 전승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본토에서는 주인공 셋째딸과 만나는 가난뱅이가 솥을 구워 팔아 살아가는 솥장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도 같다. 이같은 3국의 설화가 중국에서는 신화, 한국에서는 신화와 서동전설, 또한 유사한 것으로 온달전설, 일본에서는 민담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민간 설화에서 솥을 구워 팔아 살아가는 총각인 솥장과 무왕전설에서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이었던 마통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마통이는 제주도의 삼공본풀이, 서동전설, 일본의 서부에서 전승되는 설화에 한정하며, 그 외로 일본과 한국의 민간설화에서는 솥장이 일반적이다. 마를 파 먹는다 해서 명명된 마통이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 못하는 가난뱅이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솥장은 다르다. 민간설화에는 일관되게 솥장으로 나타나며 문헌 기록으로는 탈해가 솥을 다루는 솥장의 후손으로 나타난다. 이는 솥을 다루는 인물을 말하는데 고대에는 야장을 의미하며 그는 통치자로서 제사와 정치를 주관하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성격의 솥장이 농경의 발달과 제정이 분리되면서 신분이 변동되고, 끝내는 가난뱅이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동을 마통이라 하는 것은 가난뱅이를 일컫는 것인데 그 이름은 과거에 통치자였음을 의미한다.

무왕전설에서는 마통이가 중심이지만 ‘내 복에 산다’ 설화에서는 셋째딸이 중심 인물이다. 무왕전설에서는 셋째딸 대신에 선화공주가 등장한다. 따라서 선화공주와 대비되는 셋째딸의 성격을 살펴보는 일은 마통이와 선화공주라는 두 인물의 관계를 설화적 인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제주도에서 현전하는 삼공본풀이는 삼공신을 맞아들이기 위한 신화이다. 삼공신은 전상신이라 지칭되는데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을 말한다. 운명에는 좋은 운명도 있을 것이고, 나쁜 운명도 있다. 살다 보면 머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아픔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은 나쁜 운명일 것이고, 설화에서처럼 가난뱅이와 혼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뱅이의 일터에서 우연히 금덩이를 발견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운명이겠다.

이처럼 신화에서는 한 인간의 운명은 여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의식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신화의식이 민간에 녹아들어 민담과 전설로 전승되는 것이다. 설화에서는 여성이 주인공이고 그의 성격이 운명담당신인데 무왕전설에서는 마통이가 주인공이고 선화공주는 부인물로 나타난다. 따라서 마통이에 대한 해명은 실



존 인물을 설화화시키는 과정과 그렇게 기술한 일연의 의도를 밝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앞서 추정한 바, 서동으로 나타나는 무왕은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그는 운 좋게 그의 아버지인 법왕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왕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민간의 의식은 운명론적 사고로 정리되었고, 그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민간설화를 차용하여 무왕의 이야기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딸인 주인공이 신라 진평왕의 선화공주로 대치된 것은 백제와 신라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왕 당시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평화롭지 않았다.<sup>15)</sup> 그 이전 동성왕 시절의 혼인동맹으로 평화로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던 전승민들의 소망은 서동과 선화공주를 혼인시키는 줄거리를 만들어 내고, 서동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화공주 덕분이라는 해석을 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는 고려로 통일되었으나 대립되었던 신라와 백제를 혼인으로 맺음으로써 과거에는 친인척과 같은 가까운 사이임을 드러내면서 일연이 미륵사 연기삽화를 덧붙여 불교를 통한 화합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세에 억눌린 백성을 미륵사를 통해 단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곁들어 있다고 보아진다.

#### IV. 미륵사연기설화의 수용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서동은 실제 인물 무왕이며 그에 따른 설화는 민간에서 전승되던 것인데, 무왕을 신성시하고 영웅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제는 서동설화에 왜 미륵사 창건 연기 삽화가 접맥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일연 자신의 의도로 삽입시켜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로 전승되던 설화가 있었는데 일연이 불승의 입장에서 이를 선택, 기술했는지의 문제이다.

이제까지 선학들의 논의를 보면 미륵사 창건에 즈음하여 지명법사의 「頽山填池」하는 이야기를 들어 일연 자신의 포교를 위한 한 수단으로 첨부된 설화<sup>16)</sup>로 보고

15)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무왕은 재위 41년 사이에 8번이나 신라를 침공하고, 신라의 진평왕은 이에 대해 2번의 반발을 보일 뿐이다.

16) 김종우, "서동요 연구",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 해명』, 새문사, 1982.

있다. 일연 자신이 어떤 의도로 새로운 설화를 창작 기술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 미륵사 창건 연기 삽화의 해석도 무왕의 탄생, 혼인 설화와 별개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통치자가 왜 미륵사를 창건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라는 측면에서 고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백제 불교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의 내용 중 법왕 당시의 백제 관계 기사를 살펴 보면 〈法王禁殺條〉<sup>17)</sup>라는 중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법왕은 승을 내려 살생을 금하게 하다.
2. 이듬해 30인의 僧을 득도시키고 사비성에 왕흥사를 세우려 뜻을 세워 그 터를 뒀다가 돌아감에 그 아들인 무왕이 그 사업을 계승하여 완성하다. 그런데 이 왕흥사는 일명 미륵사라고 한다.
3. 古記는 조금 다르게 적고 있는데 무왕은 그의 가난한 어머니가 지룽과 교혼하여 낳은 이요 少名은 嚮童인데 즉위하여 號를 무왕이라 하였고 처음에 왕비와 함께 이 절을 창건한 것이라 한다.

이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항은 세속오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불교의 계율에 관계되는 記事이다. 2항은 왕흥사를 세우려 했으나 뜻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가므로 그 아들인 무왕이 그 사업을 계승하여 완성하였다 하므로 이는 무왕조의 미륵사 창건 연기 설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3항의 무왕의 탄생 내력은 설화 상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수용했으며 왕비와 함께 이 절을 창건했다고 하는 내용이 선화공주라는 인물에 대치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법왕금살조의 계율 기사는 미륵 신앙에 의한 계율이며 법왕은 이를 널리 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삼국유사 무왕조에서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것은 백제 불교의 전개 과정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불교 사상의 측면에서 국한하여 보면 법왕 시대까지의 미륵상생신앙이 무왕시대에 이르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미륵상생신앙의 전개를 가져오게 하였고, 익산의 미륵사는 백제 문화의 새로운 전개에 따른 한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미륵 신앙은 인간의 사후 성불을 하기 위해 도솔천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륵이 하생할 때에 미륵을 따라 지상에 다시 돌아와 미륵이 행하는 삼회의 설법 중에서도 初會의 설법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다.<sup>18)</sup>

17) 『삼국유사』권3, 法王禁殺條.

18) 홍윤식,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5, p.202.

이로 보아 미륵하생신앙은 귀족적 성격이 아닌 대중화된 서민들의 신앙이라 하겠다. 그러면 미륵하생신앙이 서동설화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이의 해결은 서동 전설의 성격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먼저 설화의 내용을 요약하고 하나씩 설명한다.

1. 무왕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관한 이야기
2. 서동이 신라에 들어가 선화공주를 피어 백제까지 돌아와 민심을 얻어 즉위한다는 이야기
3. 즉위한 이후 왕비와 더불어 師子寺를 찾아 가다가 池中에서 彌勒三尊佛 출현의 인연을 만나 彌勒寺를 창건하게 된다는 이야기

1항의 출생 과정을 보면 서동모는 지룡과의 교통으로 서동을 낳았다. 서동의 생모가 못가에 살았으며 지룡과 교통하여 서동을 낳았다는 기사는 <아래자 설화>를 수용한 것으로 이것은 지룡 곧 용신앙에 기초한 영웅 탄생 설화이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가능하다.

첫째, 고대 한국 사회에서는 일찍이 신라 백제 등에서 용신앙이 성행하였다. 초창기의 용신앙은 한국 고유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水神의 化神으로서 왕권의 존엄성을 높이는 입장이 되기도 하였다.<sup>19)</sup>

둘째, 미륵하생신앙에서는 용화세계를 說하고 지룡에 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sup>20)</sup>

<여기 翹頸末이라고 하는 큰 城이 있다. 굉장히 아름답고 福德의 사람들이 가득 살고 있다. 城의 가까이에는 못이 있고 그 못(池)에는 龍王이 살고 있어 밤마다 微雨를 내리게 하여 길바닥에는 먼지가 나지 않는다. 地面은 砂金으로 되어 있으며 이 나라는 轉輪王이란 왕이 다스리고 있다. 城中의 妙梵과 梵摩波提라고 하는 婆羅門 家門의 夫婦에게 彌勒은 생을 託하여 태어나다. 성장한 미륵은 세상이 五欲에 가득 차 병을 앓고 있음을 느끼고 出家하여 道를 닦게 된다. 龍華菩提樹下에 앉다. 그 때에 諸天龍神은 華香과 비를 내리게 하다. 三千大千世界는 모두 震動하다.>

이상 미륵하생경에 있어 翹頸末城의 지룡의 존재와, 지면이 모두 사금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은 무왕의 탄생 삽화 혹은 五金山설화 등에서 나타나는 화소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한다.

19) 井上秀雄, “王者と宗教”, 『古代朝鮮史序說』, 寧樂社, 1978, pp.189~282.

20) 『新脩大正大藏經』 卷 十四, p.423. 홍운식, 앞의 책, p.186 재인용.

또한 시경말성은 장차 미륵이 하생할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익산 지역은 미륵하생의 장소로 신앙한 데서 파생한 결과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설화의 화소를 미륵하생신앙에서 찾을 때 무왕과 미륵사창건 연기 삽화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다.

설화의 두 번째 단계는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민심을 얻어 즉위한다는 이야기이다. 설화 속에서 서동은 금의 진귀함을 모르는 인물인데 공주의 도움으로 금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이것은 서동을 신성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다.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던 내 복에 산다게 설화를 수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복과 운을 관장하는 신격이 국가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확대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또한 공주의 발원으로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는 것은 무가의 신격이 불교적으로 윤색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에 관심을 가질 곳은 3항이다. 삼국유사의 기록과는 달리 서동에 관한 내용이 익산 지방에는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sup>21)</sup>

東國輿地勝覽의 것으로 서동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五金寺는 報德城 남쪽에 있다. 世傳에 서동이 어머니를 효로써 섬겼다. 마을 파던 곳에서 홀연히 五金을 얻었는데 후에 왕이 되어 그곳에 절을 지었다.<sup>22)</sup>

이러한 전설이 삼국유사의 내용과 공통점을 지니는 것은

1. 서동이 어릴 때 마을 캐어 먹고 살았다.
2. 많은 금을 얻었다. 그리고 이 금의 발견과 더불어 민심을 얻어 왕이 된 이후 創寺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전설은 익산 지방에서만 전해지고 있어 서동 전설의 근원지는 익산 지방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익산은 서동에게 있어 중요한 지역이며 익산에 미륵사를 지음으로써 절대적 왕권 체제를 이룩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서동의 기이한 탄생은 백제 지방에서 전해지고 있는 아래자 설화의 수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결국 지룡 곧 용신화의 수용으로 결론지어진다. 이로써 추측되는 것은 익산 지역에 용신앙(水神)이 있어 왔는데 이 용신앙을 바탕으로 무왕이

21) 김종우는 “서동요 연구” 앞의 책에서 『동국여지승람』에서 나타나는 것들로 서동설화와 유사한 내용의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2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 33, 全羅道 益山郡 條. “在報德城南 世傳薯童 事母至孝 掘薯之地 忽得五金 後爲王創寺 其地因名焉”

마한의 중심지인 익산 지역으로 진출하려 할 때 미륵하생신앙을 익산 지역에 유포 전개시켜 나감으로써 무왕의 마한 중심지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무왕의 어머니가 지룡과 통교하여 무왕을 낳았고 그 지룡이 살던 곳이 익산 지방이라고 한다면 이같은 무왕 출생 설화의 구조적 의미는 무왕이 익산 지역의 용신앙에 의한 지배 세력을 병합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서의 용신앙이란 수신일 수 있고, 용신앙의 지배 세력을 병합하였다 함은 농경 사회에 있어 수신을 지배할 수 있는 군왕의 권위를 확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마를 파던 곳이 황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은 이 곳이 미륵하생지역으로 이해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동이 금을 얻은 이후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고 함은 미륵신앙에 의하여 민심을 수렴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륵삼존불이 출현한 인연을 만나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미륵하생신앙에 의거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 연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미륵삼존의 출현이라는 것은 미륵하생신앙에서 말하는 미륵의 龍華樹 아래에서의 三會說法을 상징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백제가 마한의 중심지였던 익산 지역으로 진출하려 하였을 때, 당시에는 농경 문화의 일환으로 農神(水神)에 대한 신앙 기반이 있었다. 무왕은 그 신앙 기반을 병합하여 익산 지역 진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신앙의 터전을 미륵하생신앙으로 전개시켜 나갔다. 그 결과 마한의 중심지였던 익산 지역을 완전 지배하게 됨은 물론 일시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용비의 발전을 기해 보려 했던 사실이 응축되어, 서동전설의 근간을 이루었다. 게다가 무왕을 영웅화시키기 위하여 야래자 설화를 탄생 삼화로 수용하고, 개인의 복에 따라 왕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당시 전승되던 내 복에 산다게 설화를 수용, 전설화시킨 것이라 보인다.

이처럼 서동설화는 내 복에 산다게 설화가 역사적 사실과 결부되어 다른 설화와 융합하면서 전설화하여 전승되는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 V. 결 론

서동요의 주인공 서동이 실존인물 무왕이라는 점을 밝힌 바, 이는 전설로 평가

23) 홍윤식, 앞의 책, pp. 186-187.

받아야 한다.

무왕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이었는데 왕위에 오른 행운이다.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던 전승민들은 운명담인 내 복에 산다계 설화를 수용하여 무왕의 왕위 등극을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마통이라 불리며 평범한 인물로 자라나던 무왕의 등극 과정을 영웅의 일생의 일반적 유형으로 인식하고, 신화적 인물의 기이한 출생과 고난의 과정을 무왕과 동일시 하였다. 그 결과 백제지역에서 전승되던 아래자 설화를 수용하여 탄생설화를 전승시켰다.

일연은 이러한 탄생설화와 운명담을 바르게 인식하고, 당시 외세에 억눌렸던 민족감정을 서동과 선화공주의 혼인으로 맺어놓고, 미륵사창건을 통한 佛力으로 단결시켜 난국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무왕설화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三國遺事』

『三國史記』

『新脩大正大藏經』

『新增東國輿地勝覽』

이병도, “서동설화에 대한 신고찰”, 『역사학보』 제1집, 1953

사제동, “서동설화연구”, 『장암지현영선생화갑기념논총』, 1971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김화경, 『한국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7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현승환, “‘내 복에 산다’ 계 설화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3

김종우, “서동요 연구”,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 해명』, 1982

홍윤식,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5

井上秀雄, “王者と宗教”, 『古代朝鮮史序説』, 寧樂社, 1978

## Abstract

### A Study on King Moo documented in Samkukyusa

Seung-hwan Hyun

It revealed that a hero Seo Dong was a real person in the legend of king Mu. Actually king Mu could not become a king at that time. However, because of the fact that he became a king, the person who handed down folk tales regarded him as a lucky person. As a result of it, they believed that it was natural for his enthronement. In this background, it was based on the fate. The story of living in accordance with ones own fate was the fate story. Therefore, the transmitter identified a hero of this folk tale with king Mu.

Il Yeon put together a story about the life of king Mu handed down among the people and connected it with Mi Ruk Sa. It aimed to unify the race with the power of Buddhism. In conclusion, a folk tale of king Mu was formed of a story of a hero birth, a story of living in accordance with ones own fate, and a story of Mi Ruk Sa.